

칼럼



작은 것을 잘 살피고 잘 관리하자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나는 아버지의 외가가 있는 전북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부송마을에서 태어나서 백일을 지나고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영광으로 이사 와서 성장했다. 어머니의 친정, 나의 외갓집이 있는 고창군 부안면(富安面) 사창리 진목마을은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에 있는 미당(未堂)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릴 적, 외삼촌과 외할머니 회갑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하루 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20km가 훨씬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진목마을을 찾아다니는 추억이 생겼다. 지금은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외숙모도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 아홉달고도 애절한 어린 날의 추억을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출생지 문인들의 단체인 고창문인협회와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아버지의 고향 영광군 대마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가 드물고 요금이 부담되어서 10km가 넘는 영광중학교를 걸어서 다니거나, 아버지가 특별히 사주신 삼천리 자전거로 통학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밤낮이 없는 힘든 농사일로 건강이 무너져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후로 나는 집과 산소 등을 관리하고자 자주 영광에 내려간다. 영광읍에서 대마면까지 가는 영광내버스 안 앞쪽 전광판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글자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작은 불씨 무시하면 작은 불씨 火 났다'. 누가 잠 생각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니 많은 생각들이 뒤따라오고, 결국 이 칼럼까지 쓰게 되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 몇배, 몇 십배의 산림을 불태워 버리는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다. 자동차가 불타고 건물도 불타고 많은 사람이 연기에 질식사(窒息死)하는 대형 화재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다. 소방차가 수십대 출동하고, 물과 소화제(消火劑)를 대량으로 뿌리는 소방 헬기가 수없이 뜨고 내려도 주(主)불을 며칠 동안 잡지 못하고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내는 국내·외 무서운 산불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작은 불씨' 같은 '작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시코 뺨아버린 작은 말 한 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글 하나가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실감나는 사례는 요사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와 언론 취재

보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나아가서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다.

글이나 시(詩)에서도 글자 한 자(字)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내가 실례로 자주 쓰는 말은 '큰 일 할 사람'과 '큰 일 날 사람'이다. '할'을 '날'로 바꾸면 그 뜻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된다.

성경에서도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昌大)하리라'고 한 것은 시작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진리의 말씀이다. 티끌 모아 태산(진합태산, 塵合泰山),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는 적소성대(積小成大),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도 같은 말이다. 시작이 중요하고,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도 미세한 것, 상세한 것, 작은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일이 되었건, 나쁜 일이 되었건 작은 처음, 작은 출발,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 모든 일에는 앞서 나타나는 작은 징조(徵兆, omen, sign)가 있다. 좋지 않은 기미(機微), 김새, 싸수, 조짐, 전조(前兆)를 잘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과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 건강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작은 신호와 경고를 보낸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도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다는 뜻이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이지만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에서도 어린 새싹, 작은 셋노란 움 하나가 자라서 수백년 동안 하늘을 덮을듯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된다. 작은 씨앗(씨알) 하나가 수백 개, 수천 개의 큰 개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천지 대자연의 법칙이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힘이 없는 것, 소외되어 빠진 것, 그늘진 곳, 조용한 소리, 소리 없는 소리 하나도 잘 살피고 잘 관리해 나가는 자상한 마음과 큰 지혜, 성숙한 삶의 태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대로 관찮을까?”

- 올바른 이용수칙 명심하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타자 -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2001년 발명 당시에는 비싼 가격과 비효율성 때문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해 대학가, 길거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운전 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을 위한 8개의 법규 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법사례 총



819건 중 안전모 미착용 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이듯,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먼저 착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거나 음주를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여러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거나 음주를 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7월 12일자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불법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기고

보행자 밤길 사고, 피할 수 없다면 예방하자

배채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인도없는 밤길 도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차량 통행량이 적어 과속 차량이 많고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 또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큰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갑자기 직면하게 된 도로변 보행자 출현은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규정속도로 주행하다가 보이지 않던 보행자가 불췌 나와서 급작스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역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로등 및 조명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곳을 수리하고, 야간에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다니는 장소를 파악하여 그 장소에 집중적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한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법은 보행자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보행자는 되도록 안전한 길로 보행을 하고 길길이 없는 도로를 야간에 걸어갈 때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야광조끼나 야광지팡이 등을 활용하여 야간 운전자에게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야간 보행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개발 및 추진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행자 역시 야간 보행 안전수칙을 지키며 생활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요율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흥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